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박물관 사랑들



2010년 봄 29호



白盆紅蓮, 지본담채, 45.3×33.0cm, 간송미술관

북산 김수철이 철종 10년(1859) 石串田舎에서 그린 「北山畫史」 20폭 중의 한 폭이다.

커다란 연잎 한 장, 추상화 같은 연꽃, 간결한 백분 등 김수철 특유의 대담한 생략이 매력적인 그림이다.

Contents

기획	4	복산 김수철
	8	추상이 담채를 머금었으니
선비들의 문화사랑	14	오호, 구십춘광
회원마당	16	왕의 이야기를 듣다
	18	영혼을 깨우는 눈빛
회원기고	22	깊은 속내, 온화한 표정으로
	24	백자, 순백과 유혹의 두 얼굴
학술상 수상논문	27	다뉴세문경 성분 조성 연구
박물관 소식	32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33	그리스전
박물관 둘러보기	34	석조물공원 가는 길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북산 김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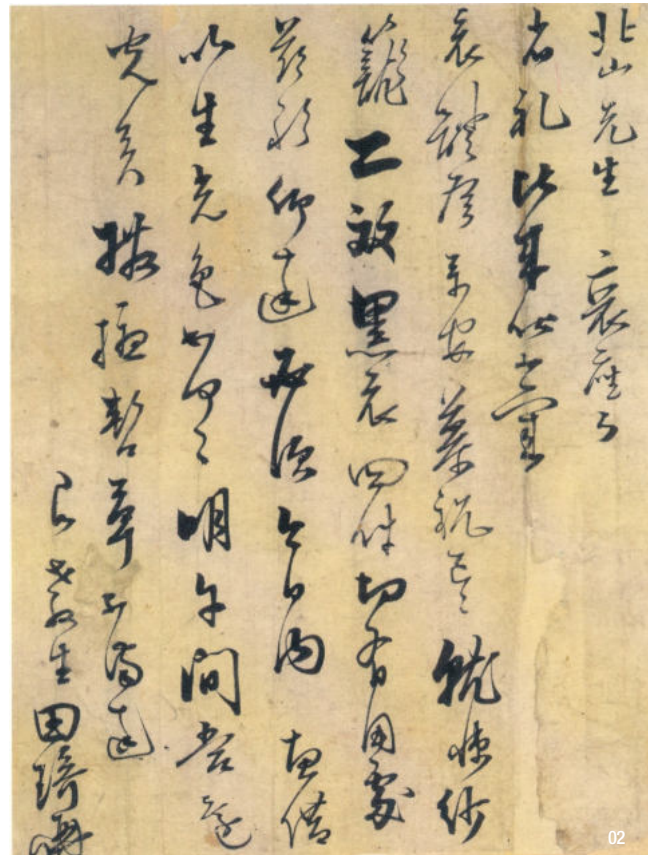
기획 | 글 _ 유 미 나 (원광대)

北山 金秀哲은 19세기 중반에 서울에서 활동한 화가이다. 산수와 화훼를 잘 그렸는데, 간결한 필치와 참신한 조형감각, 맑고 투명한 채색이 당시로서는 이색적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그림은 감각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인적 사항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본관이 盆城이고, 자는 士畚, 호는 北山이라 하였다. 생몰년은 미상이지만, 〈武陵春色圖〉의 款識를 통해 1862년까지 활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北山畫史』 화첩에 적힌 ‘石串田畝’라는 堂號로 보아 이 무렵 김수철이 도성 너머 북쪽, 오늘날의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살았던 것으로 짐작한다.

01 무릉춘색도, 지분담채, 150.4×45.6cm, 간송미술관

02 田琦의 편지글, 개인소장



그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화가로 활동한 정황은 당시 교류했던 사람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田琦라는 閩巷文人の 편지글을 보면 ‘부탁하신 북산의 절지도는 마땅히 힘써 빨리 되도록 하겠지만 이 사람의 화필이 워낙 민첩하여 아마도 늦어질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전기가 그림 주문을 받고 북산에게 중개한 내력까지 생생하게 적혀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북산 김수철이 직업화가임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서 折枝圖는 진기한 그릇과 화초, 채소, 과일 등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북산의 병풍 그림을 어제서야 찾아 왔습니다. 제가 거친 붓으로 題하였는데 당신의 높은 안목에 부응하지 못할까 심히 염려되고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또다른 전기의 편지글이 있다. 김수철의 그림에 전기가 題跋을 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교류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전기는 의원으로서 약포를 경영하는 한편 서화의 감평과 매매중개를 겸하기도 한 서화가였다.

김수철의 행적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시 藝苑의 宗匠이라 일컬어지던 秋史 金正禧의 감평을 받은 일이다. 1849년 여름에 김수철은 다른 서화가 13명과 함께 경연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 경연과 김정희의 서화평이 전기가 집성한 『藝林甲乙錄』에 전해진다. 김정희는 ‘筆意가 약간 거칠고 너무 쉬운 느낌을 준다. 위치가 자못 좋다.’ ‘포치가 딱 익숙하고 용필 역시 거리낌이 없으나, 다만 채색이 꼼꼼하지 못하였고 또



03 유숙, 벽오사소집도, 1861년, 지본담채, 14.9×21.3cm, 서울대학교박물관

04 국화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한 傘下의 인물이 약간 俗氣를 범했다.’고 했다. 이러한 평은 김수철 회화의 간결하고 생략적인 필법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채색이 꼼꼼하지 못하다거나 인물이 속기를 범했다는 것은 다소 상투적인 기법을 비판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경연에 참여한 화가는 김수철을 비롯하여 전기, 이한철, 허련, 박인석, 유숙, 유재소, 조중묵이었다.

김수철의 〈梅雨行人圖〉 상단에도 김정희의 평이 적혀있다. ‘극히 좋아할 만한 곳이 있다. 요즈음에는 일종의 率易之法을 그리지 않는다. 다만 밝은 색이 너무 과하다.’ 이는 『예림갑을록』에도 수록된 내용으로 후대에 오세창이 옮겨 쓴 것이다. 또한 김수철의 그림과 함께 묶여진 그림 8폭이 『예림갑을록』에 수록된 화가들의 것과 일치한다. 이것으로 1849년에 제작되었던 그림의 일부라고 추측한다. 흔히 김수철 회화를 ‘솔이지법’이라 칭하는 것은 김정희의 평어에 기인한다. 소탈한 김수철 회화의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고 여겨진다.

같은 중인 신분의 서화가로서 화단을 주도하던 趙熙龍과도 교유한 흔적이 보인다. 김수철의 〈매우행인도〉에는 조희룡의 제시가 쓰여 있다. ‘그린 산이 眞山 같고 산이 그린 산(畵山) 같네. 사람들은 모두 진산을 좋아하건만 나 홀로 그린 산에 들어가네.’라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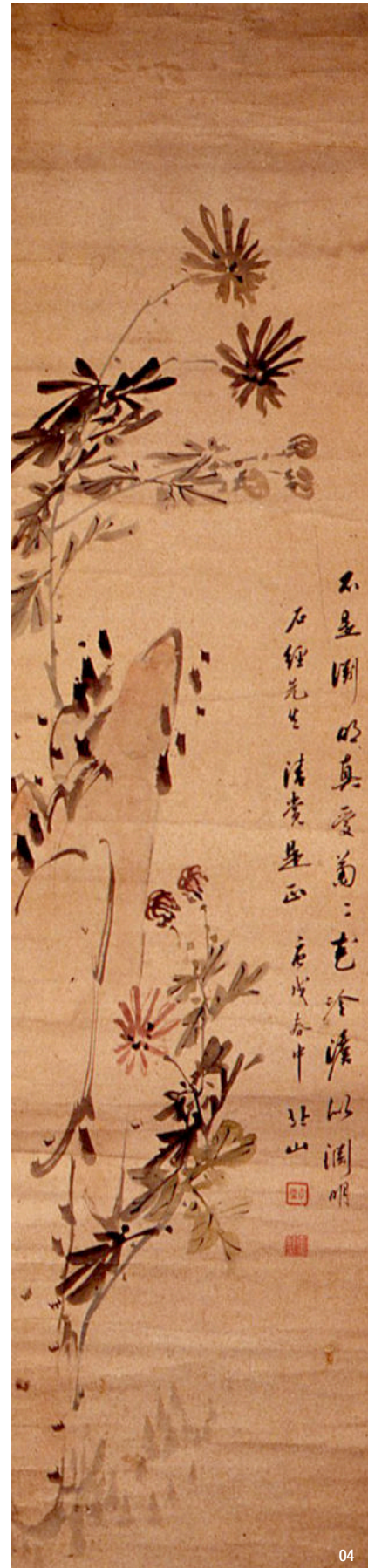
북산은 여향문인들의 詩會인 碧梧社 동인들과 交遊가 많았다. 조희룡과 전기, 유재소 그리고 御醫를 지낸 이기복 또한 벽오사의 일원이었다. 벽오사는 유최진이 맹주가 되어 그의 집인 벽오당을 근거지로 1847년에 결성된 中人詩社이다. 여향인이란 譯官 · 醫官 · 算官 등 기술직 中人인 잡직 관리와 행정직 중인인 경아전

관리를 일컫는 말이다. 조선 후기 서울에서 경제력과 문화적 능력을 갖추어 급부상한 계층으로 새로운 문화의 향유자이면서 또한 소비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劉淑의 <碧梧社小集圖>에는 여향문인들이 경치 좋은 곳에 모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있다.

중인 畫師인 유재소의 『衡堂畫意帖』이라는 화첩에는 북산이 쓴 발문이 있다. 발문에 '이것이 모두 倪黃 사이에 전래된 一室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元末 四大家 중에서 그들이 倪瓚과 黃公望의 화풍을 지향한 것을 알 수 있다. 寫意的 남종화를 추구했던 당시의 繪畫觀이 엿보인다. 북산과 유재소는 같은 길을 가는 서화가로서 끈끈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김수철은 石經 李基復과도 가깝게 지냈는데, 자신의 그림인 <국화도>에 적은 발문에서 드러난다. '도연명이 진실로 국화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국화가 도연명에 비해 냉담하였더라. 석경선생이 이를 읽고 옳다 여기셨다.'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중국 東晉시대의 문인인 陶淵明은 국화를 좋아한 것으로 유명한데, 김수철은 국화가 냉담하였기 때문에 도연명의 국화 사랑이 상대적으로 돋보인 것 뿐 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기복이 맞장구를 쳤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 김수철의 그림에 畫題를 쓰기도 한 화가 김영은 같은 분성 김씨였으며, 七松亭 詩社의 동인이었다.

김수철과 교류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여향문인으로서 중인 詩社에 참여하였거나 서화가였다. 김수철도 중인 신분의 직업화가로서 19세기에 급속히 확대된 서화시장을 배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寫意的 남종화를 추구하면서도 새로이 대두된 여향의 서화 수요자 취향에 부응하여 근대적 감각과 장식성을 더한 이색적인 화풍을 선보였던 선구적 화가였다.





01 훈강폭우도, 견본담채, 72.6×31.4cm, 개인소장

추상이 담채를 머금었으니

기획 | 글 _ 하영남



혼강폭우도 부분

그는 과묵하고 신중한 남자인가 보다. 글 뿐 아니라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생몰연대도 알 수 없고 어디 살았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자매가 몇인지도 미궁이다. 제법 글줄이나 아는 사대부와 교류도 깊지 않았는지 그의 개인사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몇몇 사람의 문집 속에 주변 인물처럼 등장할 뿐이다. 마치 빛바랜 단체사진처럼 흐릿한 원경으로 잡히는 인물이 北山 金秀哲이다. 존재의 이목구비를 살피볼 수 있는 獨寫眞이 남지 않아서 우리는 그를 단지 추론할 뿐이다. 입은 무거웠는지, 행동은 얼마나 진중했는지, 영혼은 바람처럼 정처 없었는지, 사실 아무도 아무것도 잘 모른다.

당시 신흥 문화애호 그룹인 閭巷文人들과 교류한 중인 출신의 직업화가 일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김수철은 19세기 중후반 조선회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그의 그림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다. 힘찬 붓질이나 화면을 압도하는 치밀한 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색으로 치장하지도 않았다. 특색을 꼽자면 강렬함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즘의 수채화 같은 색감을 지닌 흐릿한 그림이다.

김수철 그림은 분위기를 압도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암전한



남종화풍의 산수화도 있지만 <昏江暴雨圖>를 보면 바로 내 몸 위로 비바람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듯하다. 사실 그림 속 경치는 지극히 간결하다. 저녁 무렵의 산수는 단순한 형체뿐 그나마 비에 젖어서 물결이 드러난 것이리라. 세찬 바람을 담고 오른쪽으로 휘어진 나뭇가지가 그림의 조연쯤 될까. 얼마나 바람이 드센지 어린 가지는 땅에 닿을 듯 고개가 꺾였다. 그 위에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꽂힌다. 폭풍우가 그러하듯 갈필로 내려 긋는 그의 붓도 한 치 망설임이 없다. <혼강폭우도>는 그의 대담한 붓질이 분위기를 몰고 간다. 자세히 보면 우산을 받은 한 사람이 다리 위를 건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우산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단지 경황이 없어서 비바람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것일까? 날은 저물어 가고 불어난 강물로 다리는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데, 김수철은 왜 우산마저 저리 방향을 잡게 했을까.

흔히 김수철 그림을 신감각주의 화풍이라고 말한다. 이런 특색은 그의 화훼도에 잘 드러나 있다. 아담하고 앙증맞게 그린 종래의 꽃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다. 결가지를 툭툭 잘라낸 대담한 생략과 변형이 꽃의 자태를 돋보이게 한다. 오래 뜸 들이지 않고 민첩하게 그려낸 솜씨가 엿보인다. 간략한 묘사에 수채화 같은 색감이 더해지니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을 밖에. 이리 현대적 감각을 가진 화가가 있었던 말인가. 인상파 화가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花卉圖對聯>에서 보는 모란과 나리꽃은 감히 시대를 가늠할 수가 없다. 꽃이나 잎이 세세하지 않아 답답함이 없고 마치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듯 엷은 채색이 더해져 있다. 바위 위에 찍힌 큼직큼직한 묵점은 화면 전체에 묘한 활기를 준다. 돌이 살아있는 듯하다. 각 폭의 題詩 내용도 김수철 특유의 시각적 은유가 풍부하다. 이슬 머금은 꽃이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일렁인다.

02 화훼도대련, 지본담채, 각 120.7×32.8cm, 개인소장

名牌新樣紫牙刊 이름도 새로운 자색 순 돌아나고
 露重煙深正好看 이슬 내려 안개 자욱, 정말 보기 좋구나!
 却怪錦雲低亞樹 비단 구름 나무 아래 괴이하게 퍼졌다가
 帶風扶上玉欄干 바람결에 옥난간 위로 날려 오곤 한다네

禪家風味道家裝 선가의 풍미에다 도가의 자태를 띠어
 更有清香却殿芳 꽃마다 맑은 향기 한결 더 고와라
 最是夜深人睡去 바로 이 깊은 밤에 잠 못 들어 하는데
 滿簷團露獨葉涼 처마 가득 이슬 내려 꽃잎에 방울방울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선하기로는 표지 그림인 〈白盆紅蓮〉이다. 많은 연꽃을 보아 왔지만 이런 작품은 처음이다. 잎 한 장, 연꽃 한 송이, 화분이 전부이다. 이런 추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아름다움이 속절없이 무너지기 전에 김수철은 번뜩이는 예술적 영감을 화면에 쏟은 것이다. 재빠른 화필에 채색은 또 어찌 곱든지. 화분은 가는 막대기 같은 묵선 몇 가닥 뿐, 간결함 그 자체이다. 옆으로 펼쳐진 커다란 연잎이 없다면 그림은 얼마나 심심할까. 물을 듬뿍 찍어 잎을 넓게 칠하고 막대기 같은 잎맥을 그려 넣었다. 그가 얼마나 단숨에 붓을 놀렸는지 군더더기를 붙일 겨를이 없었나보다. 구태의연한 화법을 벗어난 간결한 구도, 극명한 함축성이 백만 송이 연꽃보다 강한 향기를 내뿜는다.

전통적인 소재인 매화도 김수철은 달리 그렸다. 〈石梅圖〉는 배경을 모두 없애고 괴석과 매화만으로 구성해서 단출하고 개성이 넘친다. 구불구불한 윤곽선으로 바위와 매화 등걸을 표현한 수법에서 꼼꼼함은 찾을 수가 없다. 매화송이는 아이가 그린 것처럼 단순한 동그라미 몇 개가 이어져있다. 분분히 찍힌 작은 점들이 있어 꽃받침도 수술도 생략된 매화에 생기를 준다. 구도는 또 얼마나 자유분방 하든지. 화면 상단에 그림이 치우쳐 가분수 같기도 한데 鐵石心腸이라는 화제로 받침대를 고이 자 무게중심이 회복되는 듯하다. 쇠 같고 돌 같은 마음이라니. 南宋 때 유배 중에도 굳은 의지를 보인 문인을 칭송하며 쓴 시에서 따온 것이다.





03

하지만 매화에 거는 비유치고는 좀 센 듯하다. 당시는 매화 감상이 열풍처럼 불어 온갖 修辭가 난무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김수철은 화려한 찬사 대신 한마디를 던진다. ‘매화의 강인함이 철석같기를’. 그는 누구를 향해 단호한 일갈을 던진 것일까?

후대 애호가들은 畫格이 가장 높은 작품으로 <松溪閑談圖>를 꼽는다. 정확한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노년기의 원숙함이 배였다고 말한다. 전통산수화 형태를 취하면서도 畫帖에서 본 듯한 그림이 아닌 김수철 특유의

시각적 미감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같은 소재의 그림이 여럿 있지만 물기를 잔뜩 머금은 김수철의 필묵법은 단연 독보적이다.

자유분방한 필선을 구사하여 묘사된 소나무들은 참신한 회화적 멋이 깃들여 있다. 화면의 여백이 넓고 시원하게 보이는 것은 경물들이 중심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확장된 여백에는 한국회화 특유의 淸氣와 삼상한 기운이 배여 있다. 소나무 아래 서거나 앉은 자세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섯 선비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흐르는 물과 같고, 소나무와 같다. 완전히 자연 형성의 일부이다. -- 허균 <나는 오늘 옛 그림을 보았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왜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당시의 사대부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가졌기에 대담한 생략과 왜곡, 청신한 색감으로 시대를 앞서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선구자여서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더욱 녹록치 않은 시선과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남다른 예술 감각의 소유자인 그는 외로웠을 것만 같다. <夏景山水圖>에서 그는 살짝 일상을 내비친다. 畫題가 한몫을 한다. ‘냇가에 물러 몇 번이나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물 위를 떠도는 꽃 탓으로 또 한 해를 머물겠네.’ 떠도는 꽃을 위안삼아 한해를 보내겠다는 그 정처 없는 마음이 읽혀진다. 여린 감성이 멀리 산봉우리



04



에는 태점을, 원경의 갈대에게는 바람을, 서옥 속의 인물에게는 풍성한 푸른 나뭇잎을 선사했다. 청량한 여름 경치를 그린 그림인데, 어쩐지 너무 맑아서 물기를 머금은 듯한 눈망울이 떠오른다.

행적은 미미하지만 그의 산수화와 화훼도는 많이 남아있다. 문집이나 家系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수집품으로 전해진다. 제법 인기 있는 화가였음을 추측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예술계의 양대 감식안은 秋史 金正喜와 趙熙龍이었는데 각각 評語와 題詩를 써 준 것으로도 그의 비범함은 증명된다. 김정희는 그의 그림을 폄하하듯 너무 쉬운 필치라고 평했다. 다만 같은 중인 출신의 조희룡은 題詩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좋은 대조를 보인다. 김정희는 다들 흠모하는 조희룡의 매화그림을 文字香이 없는 手藝에 지나지 않는다 했다. 예술가의 개성을 俗氣로 보는 간간한 사대부가 김정희였으니 무얼 더 바라겠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강폭우도>의 인물이 김수철 자신인 것 같다.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며 우산을 잡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그 그림을 그리게 하지 않았을까? 자화상을 남길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슬쩍 원경 속 인물로 숨겨놓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앞날을 예감했을까? 종이에 담채로 그린 그림은 세월의 빛을 견디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래서인지 작품도 그의 일생처럼 자취를 감추려 한다. 전시되는 작품도 거의 없다. 어쩌다 희미하게 바랜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반가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만 우산을 돌려 잡게 해야 한다고 자꾸 외치고 싶어진다.

03 석매도, 지본담채, 52.0×28.0cm, 개인소장

04 송계한담도, 견본담채, 33.1×44.0cm, 간송미술관

05 하경산수도, 지본담채, 114.0×46.5cm, 리움

오호, 구십춘광(九十春光)

| 글 _ 일엽

나는 흙덩이가 몸부림을 치고, 썩은 나무가 근지러워 애를 쓸만큼 봄의 약동이 우주에 가득찬 것을 이 봄에 이곳(城北洞)에서 처음으로 보고 또한 느끼게 되었다. 나는 본래 농촌에서 나서 소학교에 가기 전까지 거기서 자랐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조차 희미한 옛날이었다. 20년 동안은 쓰러져가는 반찬가게에 놓인 냉이나 썩부스러기의 푸른 빛을 구경하게 되고 신문이나 잡지에 늘어놓은 인조(人造)의 봄으로 봄을 맛보게 되는 복잡하고 티끌 많은 서울 장안에서 지나게 되었었다. 그러다가 작년 늦은 가을에 비로소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시들어 떨어지는 단풍잎을 보내고는 한일(閑日)같이 쓸쓸스럽고도 깨끗한 시외의 겨울을 무심히 자냈었다.

집이 봄꽃에 파묻히고, 몸이 봄 기운에 휩싸이고, 귀가 봄소리에 멍멍하게 되고, 코는 봄 향기에 얼얼하고, 발은 봄꽃·봄풀을 바리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무르녹은 봄을 만나게 되니 과연 어쩔 줄을 모르겠다.

가득한 공기보다도 넘치는 물보다도 더욱 혼하고 많은 이 빛, 이 향기, 이 봄의 소리, 이 힘! 이것을 무슨 수로 늘어놓을 수가 있을고, 어떤 재주로 그리어볼 것인가?

문을 딱 닫치고 들어앉아도 새소리·피리소리는 제쳐 놓고라도 양철 지붕 잇는 소리, 빨래방망이소리까지 봄소리 아니 들을 수 없고 휘휘 마주치는 풀냄새·꽃향기는 고사하고 채마밭가에서 풍기는 거름 냄새조차 봄냄새 아니라 할 수는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걸어도 진달래·개나리 꽃가지를 무더기로 꺾어가는 무지(無知)한 서울 아이 얼

굴이 달라지고 낙화(落花)·생화(生花)가 발에 밟히는 것은 그만두고 추녀뎡 꼬트머리에 떨어져 구르는 모색이진 돌부스러기에까지 봄빛이 반짝이고 있으니 봄소리를 안 들을 수도 없고 봄빛을 안 보는 재주도 없으니 감각 있는 동물이 아니 느낄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

아, 좋다! 하고 부르짖어도 봄을 표현할 길이 망연하고 참으로 — 아름답다고 가슴이 터지게 찬양을 하여보아도 시원치 않다.

아무래도 붓을 한 번 들어보기는 하여야겠다는 책임감이 거의 고민에 가깝도록 내 마음에 무겁지마는 줄필(拙筆)로도 그럴 수가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봄소리는 너무도 다종(多種)이고, 봄빛은 너무 다양(多様)이고, 봄의 기운은 너무도 여러 내로 퍼져 있으니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봄을 내 붓 따위로는 한모퉁이라도 완전히 그리어볼 길이 또한 없으니 봄 속에 파묻힌 나는 큰 성화를 하고 있다.

더구나 글 쓸 부탁이나 아니 받았으면 거북한 속을 몇십 일 꼭 참으면 그만이겠지만 너무도 문채(文債)가 많은 터이라 미안한 생각조차 겹치게 되니 차라리 봄을 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난다.

그리고 아름다운 봄의 느낌으로부터 깊어가는 나의 감상(感想)은 차츰 방향이 돌리어 질 것이니 차라리 붓을 놓아버리는 것이 옳겠다. <1930년>

金一葉 | 1896년 평남 용강 출생. 본명은 元周. 승려이며 시인 겸 수필가.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서구사상을 익혀 <신여자> 주간 등을 역임하며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1928년에 불교에 귀의하여 1971년 열반에 들었다.

왕의 이야기를 듣다.

| 글 김석환 | 회원

나에게 서삼릉은 아련한 기억 속에 있다. 이곳과 처음 만난 것은 입대 후 인근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때이다. 며칠 후부터 인근 부대 공사현장의 감독을 맡게 되어 서삼릉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벌써 27년 전이다. 그 때는 내 의지와 상관 없이 놓인 새로운 생활 터전이 낯설고 삭막하게 여겨졌지만 왕릉은 웬지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부대 복귀 후 이따금 서삼릉 주변으로 새벽 정찰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때가 마치 외출 시간처럼 느껴졌다. 군대에서 영역 밖은 먼 세계로 여겨지는 터라 그랬는지도 모른다. 직접 능력에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저만치 보이는 왕릉은 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었다. 어느 겨울날인가, 하얀 눈으로 덮인 너른 잔디밭이 그윽한 신비를 지닌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얼마 전 불현듯 옛 시절을 떠올리며 그 곳을 찾아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선왕릉'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계기였다. 조선왕릉은 “유교적, 풍수적 전

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 양식으로 세계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었는데 그 말이 오랜 추억을 불러왔다. 막 접어든 가을 날씨에 숲의 녹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그 호젓한 숲속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러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너른 잔디밭에 선 소나무 그늘 아래에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용기종기 앉아 쉬고 있었다. 좋은 터에 정갈하게 닦인 능과 생기가 솟아나는 큰 소나무 숲에 머무르다 보면 세상시름이 절로 씻겨질 듯 했다. 주변이 개발되는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직은 옛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풍경이었다.

조선왕릉은 그 위상에 맞는 격식과 성스러움을 정성스레 표출하고 있다. 위계를 이루며 시설과 형식을 구비해 왕실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곳 서삼릉도 그러한 조선왕릉의 기본 구조가 모두 갖추어져 마치 생존의 왕이 거하던 궁궐에 위엄이 드러나도록 각별히 형식을 갖추었던 것과 같다. 왕릉의 배치는 크게



보아 참배를 하러 들어오는 진입영역과 제례를 올리는 제례영역, 그리고 봉분이 놓인 능침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능역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둘러싸여 있다. 능의 정문에서 홍살문에 이르는 진입 영역의 길도 제례영역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 굽은 길이다.

서삼릉은 서울과 고양시의 경계를 이루는 封山을 지나 나지막한 산세에 감싸여 있어 주변이 평온하고 고즈넉한 곳이다. 희릉(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효릉(인종과 인성왕후), 예릉(철종과 철인왕후)을 아울러 일컬어 서삼릉이라 한다. 이 곳 경내에는 앞서 말한 능 말고도 세자의 무덤인 園 3基와 후궁, 대군, 공주, 옹주 등의 墓 45基가 있다. 이 곳 서삼릉에서는 다양한 능의 형태를 보여준다. 예릉과 효릉은 雙墳이며 희릉은 單墳이다. 또한 의령원과 효창원은 앞뒤로 구성되어 있다. 효릉은 별도 영역으로 현재 종축소 안에 있어 일반에 개방되지 않는다. 미리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니 초원을 넘어가는 풍경마

저 색다르게 느껴졌다. 금역을 넘본다는 짜릿함이 더해진 탓이라. 효릉은 예릉과 같은 쌍분이지만 왕은 병풍석을 두르고 있고, 왕비의 봉분에는 병풍석이 없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한양성 사대문 밖 100리 안에 조성된 능묘의 일반적인 입지 조건은 背山臨流의 양지 바른 곳에 四神형국의 주변 산세가 전후좌우에서 아늑히 감싸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자연이 도식적 완벽함을 다 갖출 수는 없기에 능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형과 입지의 차이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서삼릉의 산세는 다른 곳보다 완만한 편이어서 더 평온한 느낌이 든다. 풍수지리와 예의 규범이 어우러져 높은 격조를 이루고 있는 조선왕릉은 조선시대 인문지리 사상을 함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길게 늘어진 능의 여러 영역을 오가다 보면 그 곳에 모셔진 주인공과 더불어 이루어진 역사의 이야기가 들릴 듯하다. 어느덧 늦은 햇살이 봉분을 비추고 있다.

영혼을 깨우는 눈빛

| 글 _ 김국 _ 회원

1997년에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에 간다>란 책을 읽게 되었다. 작가는 도자기며 그림이며 불상의 아름다움을 시종 조곤조곤한 말씨로 들려주었다. 그 덕분에 학예관이란 직업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 미술품에 대한 공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도대체 우리의 그림을 내 눈으로 제대로 본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중학교 때이던가, 덕수궁에서 프랑스 인상파전이 열렸었다. 인상파 그림을 보기 위해 몇 시간의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학생의 주머니로는 상당한 값의 도록을 사서 그날 본 그림마다 밑글을 달아놓았다. 그러나 나는 정작 우리의 옛그림을 본 적이 없었다. 책에 나오는 그림 중 내가 아는 것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웠다. 그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암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화가의 <모견도>였다. 느티나무인 듯 보이는 나무 아래 어미개가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다. 어미의 품을 파고들어 젖을 먹는 강아지와 어미 등에 척 엮드려 세상모르게 잠이 든 강아지의 그림을 보고 또 보았다. 우리에게 이런 그림이 있었던 말인가. 책에 인쇄된 그림은 흑백의 명암 뿐이었지만 나는 그림 속에서 충분한 햇빛을 볼 수 있었다. 인상파 화가들이 별의별 색깔을 섞고 갖가지 붓 터치를 이용해 표현하려고 애쓴 햇빛이 어미개의 등허리에 따뜻하게 내려쬐이는 게 저절로 느껴졌다. 이암의 그림을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책제목처럼 공부하러 박물관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마침내 이렇게 늦은 나이에 박물관에 왔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게도 윤두서를 만났다.

01 이암, 모견도, 지본담채, 73.2×42.4cm, 국립중앙박물관



아주 작게 복사된 그림으로 어설피게만 보아왔던 윤두서의 <자화상>이 박물관 강의실 대형 스크린에 걸리던 날의 충격을 좀처럼 잊을 수 없다. 우리의 옛그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와 겸재 정선 등이 고작이던 내게 윤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날, <한국의 풍속화>를 강의하던 교수님의 노트북에서 떠오른 <자화상>이 한 배, 두 배 크기로 늘려갈 때마다 숨이 멎어버릴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화상>은 거대한 설산이 솟아오르 듯 스크린 위로 떠올라 강의실 전체를 장악해 버렸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의 눈에는 온 강의실 가득 윤두서의 흰 수염이 휘날리는 게 보였다. 자리에 앉은 모두가 그 날선 위엄에 압도당하여 7월의 후텁지근한 강의실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고요했다. <자화상>에 그려진 윤두서의 얼굴을 보는 동안, 내내 오소소한 소름이 돋았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눈썹과 한 가닥 한 가닥 모두 생생하게 살아있는 수염이 내 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윤두서는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박물관의 강의실에 우리와 함께 확실히 살아 있었다. “육척도 되지 않는 몸으로 四海를 초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이하곤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교수님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림 속에는 그 정도의 찬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정신세계가 들어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그림을 잊을 수 없었다. 무엇에 꽂힌 것처럼, 길을 걷거나 책을 보거나 냇을 놓고 있을 때까지도 윤두서의 <자화상>은 뇌리를 떠나지 않고 쉽없이 떠올랐다.

윤두서는 왜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그렸을까.

윤두서가 그리고자 한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음 주, 나는 박물관을 찾아가 직접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았다. 윤두서는 유리벽 속 작은 화첩에 갇혀 있었다. 그의 강렬한 눈빛이 유리벽을 깨뜨릴 듯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사방으로 날카롭게 뻗친 그의 수염을 한 가닥 한 가닥 셀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염 한 가닥마다 세상을 향해 무어라 고함을 치고 있는 듯 했다. 그의 부라린 눈 속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타오르는 유리알처럼 맑은 눈빛은 수 백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도대체 윤두서는 무엇을 그리고자 한 걸까.

그의 정신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날이 섰을까.

나는 작두 위에 맨발로 서서 춤을 추는 윤두서의 모습을 보았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자신의 정신을 매달아놓는 윤두서의 무서운 집념을 보았다. 윤두서, 그는 누구인가. 나는 윤두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본관은 해남이며 자는 孝彦, 호는 恭齋이다. 윤선도의 증손이며 정약용이 외손자이다. 그는 시·서·화에 두루 능했고, 유학과 경제·지리·의학·음악 등 여러 방면에 박학했다. 15세에 혼인하여 2남 1녀를 두었으나 22세 때 부인이 사망했다. 셋째형은 당쟁에 휘말려 귀양지에서 사망했고, 윤두서는 큰형과 함께 모함을 받아 모진 고생을 했다.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李潛(성호 이익의 형)은 장희빈을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맞아죽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윤두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46세에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해남으로 내려갔으나 2년 후 사망했다.’

그의 짧은 생애는 좌절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젊은 아내와 피붙이 형제를 질병과 당쟁으로 잃어버리고, 벼슬조차 포기한 그에게 재능이란 오히려 재앙이 아니었을까. 날로 깊어져 가는 지식으로 인해 안목이 한없이 높아질수록 현실의 고통은 오히려 커져만 갔을 그의 인생을, 그는 <자화상>을 통해 말하고 있었다.

그의 생애를 알고 나자 그의 수염이 더 따갑게 내 살을 찢러댔다. 그의 눈빛이 더 무섭게 나를 질타하는 게 느껴졌다.

너는 지금 살아있는가.

너의 정신은 지금 깨어있는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피눈물 나도록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았을 윤두서가, 지금 나를 향해 시퍼렇게 날선 눈빛으로 묻고 있었다.

02 윤두서, 자화상(국보 제 240호),
지본담채, 38.5×20.5cm, 해남윤씨종가



깊은 속내, 온화한 표정으로

| 글 _ 한갑녀 _ 회원

아직 철이 들기 전이었으니 대여섯 살 무렵이었을까. 아들 없는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나의 친정어머니는 외할머니 제사를 절에다 부탁하셨다. 어머니의 佛心이 깊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50여년 전 당시에 친정부모의 제사를 모신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절에서나마 제사를 모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으리라. 하여간 이런 계기로 일 년에 한 번씩 나는 어머니를 따라 절이란 곳을 드나들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서울 어느 후미진 곳에 있는 여승들만 기거하는 탑골승방이라 기억한다. 환한 대낮이었지만 그 곳에서 풍겨 나오는 웬지 모를 서늘하고 장엄한 분위기에 주눅거리며 절문을 들어섰다. 그러다가 절 입구를 지키는 인왕문 力士像의 분노하는 모습에 그만 울어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두 눈을 치켜뜬 무시무시한 표정의 거구가 큰 칼을 들고 너 같은 꼬마가 어딜 감히 들어오냐는 듯 내려다보는 모습에 온몸이 오그라붙어 발을 절 안으로 들이밀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일일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듯 굽실거렸다. 대웅전에 들어서도 나의 긴장감을 풀어지지 않았다. 빛을 발하며 앉아 있는 부처님의 얼굴이 어린 꼬마의 눈에는 무섭게만 보였다. 근엄한 표정에서 풍기는 위엄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지루해 질 때쯤 살짝 올려보다 찢끔해서

다시 눈을 내리깔던 그런 경외로움이 내 유년의 부처님에 대한 기억이다.

조금 철이 든 중 고교시절, 학교 수업시간에 들은 불상과 불탑에 관한 지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다. 보통 인간들처럼 편안하게 앉은 자세의 불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어쩌면 위풍당당한 불상들 속에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반가상이 내 눈을 슬쩍 비켜 갔는지도 모르겠다. 젊어 패기만만했던 시절엔 웅대하고 힘찬 불상들에 매료되었었다. 언제나 대웅전에 안치된 부처님의 크기와 위용에 의지해 나의 소원을 갈구하며 이루어지길 빌었다. 나의 불교관이나 불상에 대한 이해도 이렇듯 외향적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지금, 박물관 강좌에서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에 관한 여러가지를 접하게 되었다. 유적지 답사를 통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된 불상공부도 재미있었다. 박물관을 수시로 드나들게 되며, 전시된 유물들을 들여다보는 행운도 누리게 되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소풍가는 기분으로, 또 인격수양을 위해 용산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접했던 많은 유물 속에서 내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

킨 것이 바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83호]이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이 불상을 보는 순간, 제왕처럼 군림하던 불교에 대한 나의 강박감은 일순간에 허물어졌다.

반가사유상은 처음 인도에서 태자상으로 조성되었다. 석가여래가 왕궁을 빠져나와 수도를 하면서 사유에 잠겼던 모습이라 한다. 둥근 의자에 걸터앉아 오른 발을 올려서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있다. 그리고 오른 손을 들어서 얼굴에 갖다 대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불상의 크기가 우선 다가가기에 두렵지 않다. 그냥 보듬어 보고 싶다. 어쩌면 이리도 편안하면서,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은 매무새란 말인가. 전신을 휘감아 도는 매끄러운 의상은 바람결에 나부낀다. 살짝 드러낸 맨살에 따뜻한 체온이 전해진다. 숨소리마저 평화롭다. 뺨에 살포시 얹은 손가락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 얼굴을 감쌀 듯하다.

그렇다. 종교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제왕처럼 내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며 거대한 크기로 나의 나약함을 확인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옆에서 나와 같이 쭈그리고 앉아 어찌하면 나약한 인생을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깊은 속내를 온화한 표정으로 숨기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준다. 나이가 드니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냥 무심히 다가가 껴안고 싶은 엄마 같은 편안함이 그림다. 매달려 영영 울고 싶을 만치 나의 어리석음이 한심스러울 때도 있다. 죽음이 두렵고 힘들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질 때도 있다. 그리고 부디 편안한 저 세상으로 잘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럴 때에 나는 반가사유상에 기대어 나 자신을 구제받고 싶다. 삶이라는 苦海의 우물 속에서 툭뿌리라도 붙들고 한 방울의 감로수를 맛보고 싶다. 아니 그냥 동그랗고 따스할 것 같은 그 등에 내 삶의 힘겨움을 비벼내 버리고 싶은 것이다.



백자, 순백과 유혹의 두 얼굴

| 글 _ 최예정 _ 회원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어져온 우리 도자기 문화는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파란만장하나,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고 있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리워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은근하면서 천재적인 독창성을 발휘하여 마침내는 스스로 그 빛을 세상으로 내뿜었다. 흙과 불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하모니는 시대와 신분을 막론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대상, 그것이였다.

도자전시실에 들어서면서 아름다움에 대해 색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유리 안에 갇힌 도자기들이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있으나 선조들이 늘 가까이 쓰던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자 도자기의 아름다움이란 곧 친근함이라고 마음대로 정해 버렸다. 그리고 나니 비색청자·상감·청화·철화·분장 등 온갖 기교나 화려한 장식의 도자기보다는 순백의 백자에 마음이 이끌렸다.

내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은 자기는 달항아리였다. 백자호[보물1437호]는 둥근 모양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백자항아리이다.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모습 덕택에 달항아리라고 이름 붙여졌다. 높이와 몸체 지름의 길이가 거의 같은 전형적인 항아리. 유별나게 맵시를 부리거나 그렇다고 화려하게 장식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서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그저 둥그런 항아리이다. 몸체는 완전히 둥글지도 않고 심하게 일그러지지도 않았으나 한쪽으로 약간 내려앉았다. 입술은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 모서리는 둥글게 비스듬하고 그 아래로 밑굽이 입술지름보다 약간 좁게 균형을 맞추었다. 푸른 기운이 거의 없는 투명한 유약이 씩씩졌고 표면의 색깔은 유백색을 띤다. 그런데 높이가 40cm가 넘는 그 커다란 몸체에 고개가 가우뚱했다. 해법은 큰 대접 두 개를 서로 엮어서 붙였다고 한다. 반씩 빗어 이어붙였지만 약간 이지러져서 아래 위가 꼭 들어맞는 원도 아니고, 또 이음새가 감쪽같이 매끄럽지도 않아서 그 정체가 허무하게 드러난다. 모습대로라면 참 단순하고 담백하며 허술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 달항아리가 한참을 지나도 시선을 잡아끈다. 이지러짐도 정이 가고 어설픈 것도 원래 그래야만 하는 것 같다. 사대부가의 사랑방 서안 뒤로 텅그러니 보이는 달항아리. 원만하면서도 순백의 절개가 돋보인다. 또 다른 장면은 안채의 뒤주 위에 얹혀있는 달항아리이다. 그 안에 들어있을 내용물은 차치하고 그저 퍼주기만 하는 손 큰 우리네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느 자리에서나 편안하고 또 제법 멋들어지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첫 느낌은 ‘평범하고 순수하다가 푸근하다’에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면서 섹시하다’로 변해간다. 평범함 이면에 의외의 화려함이 엿보인다는 사실이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분청사기와 상감백자의 화려한 색상과 편병·사발·항아리 등 눈을 즐겁게 하는 도자의 몸짓을 외면하고 또 하나의 백자 앞에 발걸음이 멈췄다. 백자병[보물



01 백자호, 조선 18세기, 높이 41.0cm, 국립중앙박물관

02 백자병, 조선 15-16세기, 높이 36.2cm, 국립중앙박물관

1054호]은 단단한 형태의 경질백자로 맑은 유약이 고르게 입혀져 있다. 벌어진 입으로부터 긴 목을 지나 몸통까지 유연한 곡선을 따라서 몸체는 풍만하고, 넓고 높은 굽다리는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 15~16세기 조선 백자는 왕실의 통제 하에서 유교적 권위를 따르는 절제미를 살려 제작되었다. 푸른빛을 띠는 백색유약의 광택은 은은하고 풍만하면서도, 단정한 형태와 부드러운 순백의 색감이 멋들어지게 조화를 이룬다. 단순히 물이나 술을 담는 용도이지만, 왕실의 제사에 쓰이는 제기나 연회의 예기로서 그 격식을 갖추었을 때 백자의 미가 한껏 발휘되었을 것이다. 그저 백자이면서 기품이 느껴지고 편안하면서도 위엄이 느껴지니 이 역시 백자의 두 얼굴이다.



03

백자의 순수함에 매료되자 고려 백자도 눈에 들어왔다. 청자실의 12세기 초에 제작된 '백자매병'이다. 몸체는 어깨가 급히 벌어졌다 좁아진 전형적인 매병 형태이고 몸통 위에 밑이 넓은 굽 없는 사발 모양의 뚜껑이 얹어져있다. 몸체의 바닥은 뚜껑보다 약간 좁아 매끈하면서 안정적이다. 색감은 조선시대 백자의 유약보다 흰 빛이 탁하지만 백자의 은은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매병 위에 뚜껑을 얹은 모습을 한참 들여다 보니 스르르 한복을 입은 여인의 실루엣이 교차되었다.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은 단아한 여인이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매병이 소박한 여인이라면 달항아리는 색으로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여인이요, 모습으로는 어눌하면서도 풍만한 여인이 아닐까. 백자에서 평범한 여인이 연상되고 또 그 여인이 매혹적이고……. 백자에서 연상되는 그림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03 백자매병, 고려 11-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톡톡 튀고 화려함을 좇는 현 세태에 백자의 순수함을 드러내어 말한다고 고무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넘쳐나는 색채의 프리즘 속에 백색은 사실 너무도 위태롭다. 오염되기도 쉽고 오점을 남기기도 쉽다. 그러나 하얀 달항아리를 떠올리면 각박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맛볼 수 있다. 짧은 휴식으로도 단순히 머리를 비우고 넉넉하게 가슴을 채우면 우리의 삶이 여유를 찾을 것이다. 순백의 백자를 빚은 우리 선조들의 따뜻한 손길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위에 언 몸을 녹여주는 유리장 속의 백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 성분 조성에 관한 연구

— 한국 · 중국의 동경 성분 분석 사례를 통한 고찰

| 글 _ 유혜선 _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

I. 머리말

동경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형태와 문양을 중심으로 한 형식 분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이 형식 분류를 바탕으로 만주-한반도-일본열도에 걸쳐 분포하는 다뉴경의 제작, 유통이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¹⁾ 그러나 이러한 형식 분류학적 연구방법만으로는 동경의 제작지와 제작기술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자연과학적 분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자연과학적 분석은 몇 점의 동경 편에 대한 성분조성 및 미세구조관찰, 그리고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한 산지추정 등에 불과하였으며, 그 연구 성과도 미비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동경의 수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자연과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성분조성과 배합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한 시료의 파괴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이동형 X-선형광분석기를

사용하게 되어 비파괴 분석으로도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물론 표면을 덮고 있는 부식물의 성분은 원래 소지 성분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파괴 분석은 가능할지라도 동경의 원래 조성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제작당시의 동경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즉, 부식되지 않은 동경의 단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동경의 경우는 대개 고분에서 파편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출토 당시에는 토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물의 안정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보존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동경의 원래 소지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성분분석도 가능하게 된다.²⁾ 실제로 필자는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재 보존처리 과정 중에 분리한 파편 단면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1) 이청규, 「多鈕鏡의 型式과 그 分布」, 『한반도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2007).

2)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국·공립 박물관은 물론이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포함)이나 문화재 발굴기관 등에도 보존과학실이 있어, 보존처리 과정 중에 원래 소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 성분 조성 및 동경을 주조할 때 용탕의 주입구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 성과에서 알려진 한국과 중국 동경의 성분 분석 사례를 모아 시대흐름에 따른 동경 성분의 변화 등을 고찰 하였다.³⁾ 그리고 동경의 주성분인 구리, 주석, 납의 함유량에 따라 분류한 중국 동경의 유형(A~F)과 우리나라 초기철기~통일신라에 이르는 동경 성분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된 우리나라 동경의 성분 조성에 따라 5가지 유형(K1~K5)으로 분류해 본 다음, 시대 흐름에 따라 각 유형별 동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II.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분석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은 재처리 과정에서 19개 파편으로 분리되었으며(그림 1), 이 중에서 동경의 소지면이 잘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6개 파편 단면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리, 주석, 납이 주성분인 3원계 청동 합금제로 판명되었으며, 각 파편의 위치에 따른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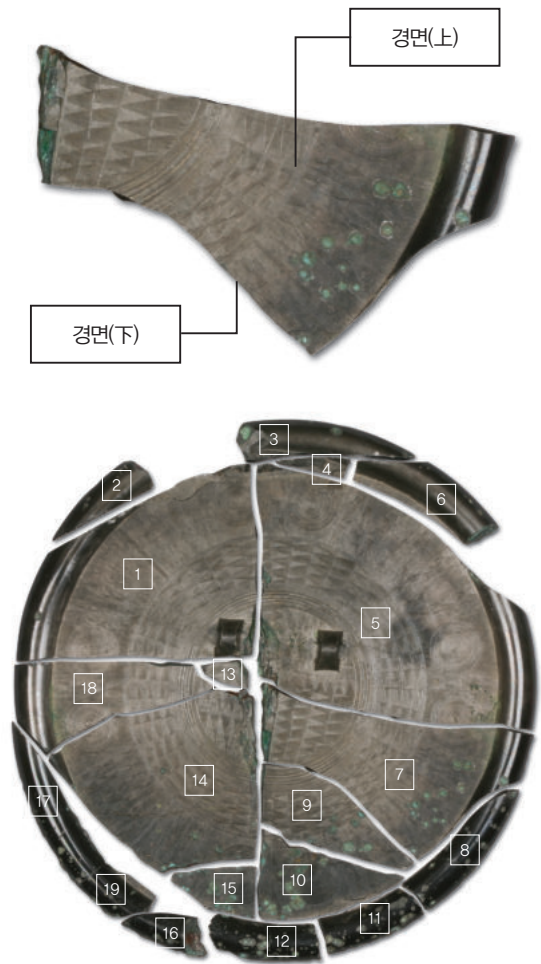


그림 1. 19개 파편으로 분리된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

표1.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소지)의 성분 분석 결과

분석위치		성분원소	Cu	Sn	Pb	Zn	Fe	Ni	Ag	비고
주연부	1-body1,2		61.13	32.90	5.46	0.15	0.01	0.15	0.20	Co검출
	4-body1,2		61.88	31.86	5.71	0.18	0.02	0.15	0.21	Co검출
	5-body1,2		61.86	32.42	5.08	0.19	0.07	0.15	0.25	Co검출
	6-body1~3		60.75	31.80	6.71	0.08	0.14	0.13	0.21	Co검출
	7-body1,2		62.08	31.93	5.41	0.15	0.08	0.15	0.22	Co검출
	8-body1~3		60.35	31.94	7.09	0.12	0.10	0.15	0.25	주입구 가능성 有
	11-body1,2		61.55	31.95	5.88	0.14	0.11	0.15	0.20	Co검출
	12-body1~3		61.65	32.11	5.74	0.12	0.07	0.17	0.21	Co검출
	14-body3		62.35	31.96	5.04	0.19	0.07	0.17	0.18	Co검출
	17-body1		62.06	31.71	5.63	0.20	0.06	0.16	0.18	Co검출
	18-body3		61.68	31.78	6.09	0.07	0.01	0.12	0.25	Co검출
	19-body1,2		61.89	31.94	5.45	0.21	0.09	0.17	0.26	Co검출
	평균		61.60	32.02	5.77	0.15	0.07	0.15	0.22	Co검출

3)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작 당시 동경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원래 소지면이 잘 남아 있는 동경 단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경면 (上)	1-body3	61.08	33.17	5.20	0.15	0.02	0.16	0.22	Co검출
	5-body4	61.29	31.89	6.22	0.10	0.06	0.14	0.25	Co검출
	7-body3,4	62.73	33.82	2.81	0.15	0.08	0.16	0.26	빨리 굳음?
	9-body1~6	61.96	32.27	5.15	0.13	0.09	0.16	0.24	Co검출
	10-body1,2	62.09	32.29	4.94	0.26	0.07	0.16	0.21	Co검출
	14-body1,2	62.65	32.22	4.43	0.20	0.07	0.18	0.26	Co검출
	15-body1	60.18	32.54	6.53	0.24	0.07	0.16	0.25	no. 14의 경면(하)와 인접
경면 (下)	4-body3	62.48	31.95	5.05	0.11	0.02	0.14	0.25	no. 5와 인접
	5-body3	63.12	33.92	2.48	0.14	0.08	0.19	0.20	no. 7의 경면(상)과 인접
	7-body5~7	61.05	32.05	6.24	0.14	0.08	0.16	0.28	Co검출
	9-body7	61.27	32.01	6.12	0.16	0.08	0.17	0.21	중앙에 인접
	13-body1,2	61.65	32.11	5.74	0.12	0.07	0.17	0.21	Co검출
	18-body1,2	61.32	31.94	6.07	0.15	0.02	0.28	0.20	Co검출
	평균	61.76	32.48	5.15	0.16	0.06	0.17	0.23	Co검출

III. 한국·중국의 동경 성분 분석 사례를 통한 특성 고찰

1. 중국 동경의 성분

(단위 wt%)

표2. 동경의 주요 조성 성분의 차이에 따른 유형(A~F) 분류

비고	유형 성분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주석	구리	납	주석	구리	납	주석	구리	납	주석	구리	납	주석	아연	구리	납	구리	비소
최대		27.6	72.4	9.0	27.2	76.2	3.0	19.7	75.1	9.7				12.9	9.3	71.7	23.7		
최소		21.0	65.1	3.8	21.2	71.2	0.6	14.3	70.9	7.8				5.5	2.4	67.2	7.6		
평균		24	69	6	25	73	2	17	73	9	8	70	21	8	6	69	15	96	3
Sn:Cu		26	74		25	75		19	81		10	90							
시기		秦式(4) 前漢(4) 漢(11) 後漢(3) 後漢三國(5) 漢末魏晉(1) 西晉(1) 三國六朝(2) 六朝(1) 隋(2), 唐(1) 唐式(朝鮮出土-1) 唐末宋初(1) 日本上古(3) 唐鏡(2) ^s 漢(4) ^y 前漢(2) ^y 戰國晚期-秦(1) ^y			秦(4), 後漢(1) 秦(1) ^s , 漢(1) ^s , 漢式鏡(1) ^s 六朝(1) ^s 漢(2) ^y 西漢早期(1) ^y			宋(2) 三國六朝初(1) 朝鮮高麗(1)			秦(1) 宋末以後(1)			宋(1), 宋初(1) 金承安三年(1) 明洪武(1)			? 幾何學文帶鏡片		
수량 (점)		49			12			4			2			4			1		
비율 (%)		68.1			16.7			5.56			2.78			5.56			1.39		
대표시기		漢(24점), 秦式(4점), 隋唐(5점)			秦(5점), 漢(4점)			宋(2점)						宋(2점)					

* s: R. W. Swallow 『Ancient Chinese Bronze Mirror』,
y: 山崎一雄 『銅鏡, 銅鐸および銅利器などの化學成分』

c: E. R. Caley의 『Analysis of Ancient Metal』,
j: 『西安地區漢墓出土銅鏡的金相組織及成分分析』에서 인용한 분석 결과임.

2. 우리나라 동경의 성분

우리나라 동경의 분석 사례들을 주성분인 구리, 주석, 납 성분 조성에 따라 5가지 유형(K1~K5)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으며 (표 3)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3 . 우리나라 동경 조성 성분의 차이에 따른 유형(K1~K5) 분류

비고	유형 성분	K1형			K2형			K3형			K4형			K5형		
		주석	구리	납	주석	구리	납	주석	구리	납	주석	구리	납	주석	구리	비율 (단위 wt%)
최대		32.2	65.8	6.3	25.8	71.4	7.8	27.0	76.2	2.2	20	80	4	18	73	8
최소		28.4	61.7	4.7	22.6	66.8	4.9	21.6	72.1	0.0	16	79.7	0			
평균		29.7	64.4	5.5	24.1	68.5	6.1	24.4	74.5	0.6	18	80	2			
Sn:Cu		32	68		26	74		25	75		18	82		20	80	
시기		초기철기(5)			초기철기(1) 원삼국(1) 삼국(1) 통일신라(2)			삼국~통일신라(2) 통일신라(3)			초기철기(1) 삼국말기(1)			통일신라(1)		
수량 (점)		5			5			5			2			1		
대표시기		초기철기						통일신라								

IV. 우리나라 동경의 성분 조성에 대한 종합적 고찰

1)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은 한국식 동검문화의 발전기에 해당하는 유물로서 외형적인 우수성 뿐만 아니라 청동기 제작기술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동경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황금비율로 제작되어 색상이나 반사율 면에서도 최상의 조건을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을 비롯하여 초기철기시대에 제작된 세문경은 의도적으로 ‘금유육제’에 언급되어 있는 구리와 주석 성분 비율에 맞도록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동경들의 색상은 거의 은백색에 가까워서 반사율을 높임으로써 사물을 비추는데 매우 적합하였을 것이다.

3) 우리나라 동경의 성분 조성에 따라 5가지 유형(K1~K5)으로 분류하였으며, 초기철기시대 세문경은 주석의 함유량이 높은 유형 K1에 속하고, 이후 원삼국시대부터는 주석의 함유량이 적어지면서 유형 K2와 K3를 갖는 동경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통일신

4) 본 고에서는 21점의 동경 분석 결과를 표에 수록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봉산 송산리와 아산 남성리 세문경의 경우는 부식물에 대한 분석 결과로 추정되므로 분류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19점의 동경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였다.

라시대 동경의 경우는 K2, K3, K5 유형에 속하고 있어, 동경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향후 과제로 보다 많은 수량의 동경 성분 분석 결과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고에서 다루지 못한 조문경에 대한 성분 조성이나 중국의秦시대 이전의 동경 분석 사례에 대한 고찰과 일본의 동경 성분 조성에 관한 연구 내용을 확보하고 체계화한다면 우리나라 동경의 정확한 편년은 물론이고, 동경의 제작지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한국-일본에 이르는 동경 문화의 흐름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평 -

보존처리 중에 얻을 수 있는 유물에 관한 성분정보를 비파괴분석을 통하여 확보하였고 이를 우리나라의 동경들과 중국의 동경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동경의 제작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다. 특히 본 동경의 여러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 데이터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타 유물 정보를 매우 꼼꼼히 분석정리 함으로써 앞으로의 이 분야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박지선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과 관련한 기존의 형식 분류학적 연구방법에서 진일보하여 자연과학적 비파괴 분석방법인 XRF와 ICP-AES를 활용하여 성분 분석을 통해 동경의 특성을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다뉴세문경과 연관이 깊은 중국동경의 연구 분석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동경의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점이 참신하고 향후 유사한 연구 사례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경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 일부 유형에 속하는 유물의 수량이 적은 한계가 있지만 이는 추후 연구자들의 노력에 따라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동경에 대한 기초 성분분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안병찬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구분	전 시 명	전시기간	장 소
기획전	잉카 문명전 “태양의 아들, 잉카”	'09. 12. 11 ~ '10. 03. 28	기획전시실
	그리스전	'10. 5. 1 ~ '10. 8. 29	
	황남대총전	'10. 10. 5 ~ '10. 11. 14	
	실크로드전	'10. 12. 14 ~ '11. 3. 27	
특별전	청동기시대전	'10. 4. 27 ~ '10. 7. 4	특별전시실
	태국 보물전	'10. 10. 5 ~ '11. 1. 16	특별전시실
	고려불화대전	'10. 10. 12 ~ '10. 11. 21	불교회화실
테마전	고구려의 山水와 神獸 ; 진파리 1호 사신도	'10. 3. 2 ~ '10. 7. 25	고고관
	모란도	'10. 4. 6 ~ '10. 6. 20	미술관
	6세기 신라를 보는 열쇠, 文字	'10. 4. 20 ~ '10. 6. 20	고고관
	금당사 괘불	'10. 5. 18 ~ '10. 8. 1	미술관
	고려동경 - 작은 공간에 담긴 고려인의 삶	'10. 6. 21 ~ '10. 8. 29	역사관
	명청서화	'10. 6. 22 ~ '10. 10. 24	아시아관
	조선왕실 도자기의 산실, 官窯	'10. 6. 22 ~ '10. 11. 14	미술관
	관념적 조형미, 강서중묘 사신도	'10. 7. 27 ~ '10. 11. 28	고고관
	흙의 조형	'10. 9. 7 ~ '10. 11. 9	기증관
	강서대묘 사신도	'10. 11. 30 ~ '11. 3.	고고관
	함흥 - 이성계가 성장한 역사의 고장	'10. 11. 30 ~ '11. 3.	역사관
	이인상의 서화	'10. 12. 21 ~ '11. 3.	미술관

** 2010년 전시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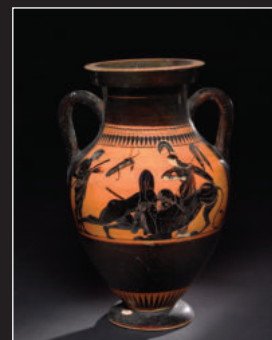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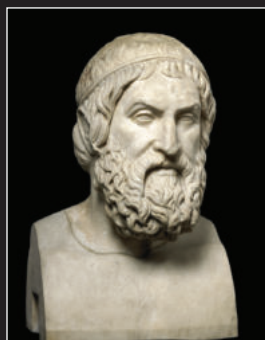
The Body Beautiful in Ancient Greece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세계 문명전 시리즈의 일환으로 고대 그리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각과 토기 등 미술품을 통해 서구 문명과 사상의 기반인 그리스 문화를 선보인다.

그리스 미술에서는 영웅과 인간을 닮은 신의 모습을 통해 인본주의를 조명한다. 또한 조각작품에서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인체 표현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감상한다. 올림피아 모형에서는 건전한 체력과 사상을 함양하고자 했던 그리스인의 이상과 가치관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생과 죽음, 성과 욕망 등 삶의 여정을 간접 체험한다.

특별전의 대표 유물로는 '원반 던지는 사람',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 그려진 토기', '아프로디테 상' 등이 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분다.
작은 길은 봄을 담고 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며 꽃들이 파르르 깨어난다.
어느새 식구가 늘어서 까치들도 분주하다.
사각사각, 대나무들이 새 계절을 이야기한다.
햇살 좋은 날,
봄을 만나러 함께 갈까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萬, 金聖鎭,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金正泰
理 事 | 崔光植 金寧慈 金信韓 朴仙卿
成弼鎬 申聖秀 申硯均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鄭明勳 池健吉
洪政旭
監 事 | 金義炯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千 信 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 昌 根 소 장 가
하나금융지주 金 正 泰
尹 章 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 憲 澈
尹 碩 敏 SBS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 相 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 炳 燁
(주)한섬 鄭 在 鳳
(주)STX 姜 德 壽
朴 容 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 明 勳 서울시향 고문

■은관회원

柳 昌 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 鍾 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 弼 鎬 광성기업 대표
徐 載 亮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 芳 熙 (주)풍산주택 회장

■청자회원

申 硯 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 仙 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 永 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 永 珮 김&장법률사무소
玄 明 官
申 聖 秀 고려산업(주) 회장
權 俊 一 · 具 在 善 Actium 부회장
南 秀 淨 (주)썬앳푸드 대표
李 仁 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 榮 秀 변 호 사
胡 鍾 一 호성공업회장

趙 炳 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慎 昌 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 雲 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 英 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 美 淑 삼표산업
鄭 在 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朴 海 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李 起 雄 열화당 대표
辛 永 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 炳 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 載 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 鈴 子
許 裕 秀
金 宗 學
都 炯 泰

한국도로공사

李 宇 鉉
玄 智 皓
金 芝 延
金 南 延
최 철 원
洪 政 旭
李 明 姬
金 信 韓
金 寧 慈
金 正 宙
梁 性 完
梁 汰 會
尹 在 倫
丁 恩 美
趙 顯 相
鄭 義 宣
崔 惠 玉
洪 錫 肇
鄭 溶 鎭
洪 誠 杓
崔 世 勳
金 承 謙
朴 世 昌
崔 杜 準
李 海 珍
金 澤 辰
李 善 眞
庚 圓

한국도로공사
李 宇 鉉 OCI 부사장
玄 智 皓 (주)화승 부회장
金 芝 延 컨셉바이동훈 대표
金 南 延 동훈디앤아이 대표
최 철 원 M&M(주) 사장
洪 政 旭 국회의원
李 明 姬 경운박물관장
金 信 韓 대성산업 전문
金 寧 慈 (주)예을 이사장
金 正 宙 넥슨홀딩스 대표
梁 性 完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梁 汰 會 (주)비상교육
尹 在 倫 서울대학교 교수
丁 恩 美 (주)종로대학편입사 대표이사
趙 顯 相 효성그룹 전문
鄭 義 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洪 錫 肇 보광웨미라마트 회장
鄭 溶 鎭 신세계 부회장
洪 誠 杓 코스테크 부회장
崔 世 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金 承 謙 (주)서릉 대표
朴 世 昌 금호아시아나 상무
崔 杜 準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李 海 珍 NHN(주) 이사회위원장
金 澤 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 善 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庚 圓 광제사 주지

일진홀딩스(주) 대표
대한전선 부사장
한국미술협회회원
재미교포
(주)시몬드 회장
제일모직 전문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한국 고미술 자기연구소
대신증권(주)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주) 전문
두산중공업 사장
(주)연극열전 이사
(주)KPE 전문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성신양회(주) 부사장

책을 만들면서..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예쁜 마음 ...
이 봄에 다시
다가오는구려! (水)

시대를 불문하고
천재는 외롭다
그의 작품이 있어
우리는 잠시 숨통을 트는데 ... (河)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여기저기 와글와글 시끌벅적 아우성들
파란 짝이 소옥 올라 왔어요 (리)

따사로운 봄별을 고대하며
햇병아리 신고합니다.
무한열정 !!! (藝)

두꺼운 옷 벗으니 날 듯 가볍고
편집만 하니 마음 또한 가벼운데
아~ 무거운 것,
겨우내 붙은 살을 어쩔꼬냐!(정)

창문 밖, 볼그레하니 물오른 나무.
지난 겨울 병치레는 나이 먹느라
그렇다 자조하면서
내 마음에 담긴 봄날을
기다려 봅니다.(愛)

벌써부터,
두 눈 가득 초록이 보고 싶다.(延)

** 회지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일 | 2010년 3월 10일

발 행 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 행 인 | 유창종

기 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예정·하영남

진 행 | 서승연

발 행 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전 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